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7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0. 5. 29(금) 09:04~13:42
- 장 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본관 3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박경주 위 원  
유은선 위 원  
이시백 위 원  
이원재 위 원  
이희경 위 원  
전고필 위 원  
정유란 위 원  
조기숙 위 원  
홍태림 위 원

## 1. 성원 보고

### ○박종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9개의 의결안건과 6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중에서 이진희 위원을 제외한 11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모친상 중인 이진희 위원을 제외한 11인의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27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을 보시면 됩니다.  
전차(前次) 회의결과라고 해서 275차, 276차, 277차 안건번호와 안건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275차, 276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3개의 의결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되었으며, 5월 20일에 서면으로 개최된 제277차 1개의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으로부터 전차(前次) 회의의 보고를 받으셨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4. 의 결 사 항

###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 안건은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일부분야(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이 건은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공연창작부장 양한성입니다.

7기 위원회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원래는 전체 분야의 심의결과를 같이 의결하는 게 원칙인데요. 2월 달에 먼저 무용, 전통예술을 의결했고 3월 달에 연극, 창작뮤지컬 등 남은 분야를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종합적으로 3월 말에 의결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쇼케이스 일정이 미뤄져서 이번 달에 여기 나와 있는 3개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결과로 1차 무용, 전통예술에 이어서 조금 시차를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심의결과를 의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 아시겠지만 공연예술창작산실은 단계별 제작지원 방식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본공모나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창작활동의 지원 그리고 이것을 본 공연으로 무대화 하는 올해의 신작 그리고 재공연, 유통까지 이르는 일련의 단계별 제작지원 방식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시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었고 1차 서류, 2차 PT인터뷰 심의를 거쳐서 후보작들을 걸러냈고 후보작에 대해서 약간의 쇼케이스 제작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본격 실연심사를 통해서 최종 본 공연, 올해 하반기 말부터 내년도 초까지 이어질 본 공연 작품들을 장르별로 선정하는 프로세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연극·창작뮤지컬·창작오페라에 대한 심의를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연극·창작뮤지컬은 소극장 그리고 창작오페라는 대극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모든 분야를 실연심사로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들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20분, 30분의 짧은 쇼케이스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본 공연까지 예측하고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낭독형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오페라 분야는 유효한 분야라고 판단해서 오페라 분야에 한해서만 실연형 심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면 지원신청건수와 선정건수가 나와 있는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연극분야의 작품 퀄리티를 엄선해서 선정하다보니까 잔여예산이 3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표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 불용이 되면 차후 기금예산을 받는데 리스크가 있어서 최대한 불용을 없애고자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대본공모, 극작가 지원이 가장 취약계층이고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식이라고 판단되어 이쪽에 얹어서 최대한 많은 극작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경과가 나와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중복되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의 장르별 심의위원을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소극장과 대극장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객석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했고, 소극장 여건에 따라서 관객평가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극장인 오페라 분야만 관객평가단 가중치 20%를 적용해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작년도 정시공모사업 전체 의결을 할 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분야뿐만 아니라 1~2개 사업정도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담심의위원제를 적용했었는데요. 심의위원 후보자 풀을 기초적으로 활용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담심의위원제는 심의위원 풀에 없더라도 현장 감각이 있으신 전문가까지 총 망라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2배수 분야별 전문가(비상임위원) 2배수로 해서 종합 4배수 인원에 대해서 추천방식으로 섭외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심의운영규정과 방침에 따라서 적용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페라 분야는 2년간 연속 지원방식이고요. 전년도 창작품을 발굴 후에 작가와 작곡가를 지원하고 이듬해 쇼케이스를 오페라단과 매칭 하는 다른 방식이 있어서 기존의 심의위원후보단을 활용한 심의위원 구성방식이 되겠습니다.

도표에는 연극분야 전담심의위원이 비고에 빠져 있는데요. 자료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지원심의결과 총괄내역인데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6월 2일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심의 추진경과 및 심의위원 명단, 심사총평, 지원대상 선정내역까지 주요 사항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이하 불임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당초 지원신청공모 때 요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는 지원심의결정 세부내역이 장르별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결과 발표 때 발표될 예정이고요. 총평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연극에서 잔여예산이 남았는데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면서 그냥 5개 팀만 지원을 했나요? 통합 몇 점 이상으로 잡았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처음부터 점수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일자별로 4일간 진행을 했는데요. 3개에서 4개의 작품을 순차적으로 보시고 그때그때 작품이 끝나면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에 간단하게 종합적인 의견을 나눈 다음에 가평가의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마지막에 최종 작품까지 보고난 후에 심층토론을 거쳐서 질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 여부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이 선행 되었고요. 채점은 그 부분을 피드백 하는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늘 그랬듯이 불용이 생기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2개라도 더 많은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총평에도 나와 있듯이 최근 올해의 신작의 질적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향세에 있다는 진단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엄선에서 선정을 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본 논의에서 약간 벗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7쪽을 보시면 ‘회계 및 성폭력예방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할 때 성폭력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성폭력예방 교육을 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예, 그 샘플을 보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간략하게 보고가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성폭력예방 교육에 대해서요.

○전효관 사무처장

- 자료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난번 회의에서도 설명을 했을 겁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공정심의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하나 더 있는데요. 8페이지에 연극분야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여성 심의위원이 1인밖에 없잖아요? 제가 처음 회의에 들어와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추첨을 하실 때 나온 결과에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으면 재 추첨을 하는 규정은 없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당연히 있습니다. 지역출신, 성별, 연령대가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초 7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인이 여성분이셨습니다. 1차 심의 때는 참석을 하셨는데 2차 심의부터는 개인사유로 참석을 못하셔서 이 자료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당초에는 2인이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면 여성분들은 3개 파트 모두 공연예술인데요. 연출보다는 대부분 기획이거나 극작가로 되어 있어서요. 혹시 “인력풀 자체의 여성연출가들의 리스트 풀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냥 단순히 극작만 하고 기획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 무대에는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반영된다면 결과적으로 창작물이 나왔을 때도 그 창작물에 성인지적인 관점이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아시는 얘기겠지만 서울이나 경기로 되어 있는 사항들, 이런 현상들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일단 공연예술창작산실은 비평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제작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예술적 수월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역선정비율 최소 보장제 적용을 의무사항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간사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역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쇼케이스는 여차피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후보 등록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선정이 됐고 최종에서는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간힘을 썼지만 현실적으로 심의를 해 보니까 퀄리티의 편차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청년지원 등 사업에는 지역 선정비율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안내를 하는데요. 지역에서의 반응이 조금 덜 적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윤주 위원

- 박경주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심의위원 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왜 여성이 없냐?”, “왜 지역이 없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정심의회 특히 정창호 부장님 같은 경우 더 풍성한 심사풀이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천이죠? 어제도 제가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위원님께서 “7기 위원을 다시 모시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서 팔로잉을 하면서 ‘나도 지원해 볼까?’ 하는 의욕이 생겼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도 여성이나 지역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술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런 노력이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풀 구성에 있어서도 7기 위원들이 주역이 돼서 더 많은 여성과 더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나중에 풀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 지역의 균형이 잡힌 풀이 구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주 위원

- 추가로 건의를 드리면 그런 인력 풀을 모집할 때 단순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만 공지를 하지 마시고 언론 등의 매체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런 보도 자료를 간단하게 보내 주면 어느 언론이든 작은 기사라도 낼 수가 있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만 해당되는 아니고요. 심사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각각 매기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저희가 태블릿PC로 접속해서 온라인 채점으로 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은 배제를 하시는 거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아니요. 옛날에는 배제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체 평균 평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그게 공정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류집단이 있고 비주류집단이 있을 텐데 주류집단이 받고 있는 관점에서 완전히 점수를 나쁘게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조기숙 위원

- 박경주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하루 종일해도 부족해요.

○박경주 위원

- 예, 저는 전체 심의결과를 의결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여쭙본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이니까 뒷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전효관 사무처장

- 심의제도는 전반적으로 신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심의 풀도 저희가 분야별로는 약간 불균형한 부분도 있는데요. 몇 천 명 단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요약하자면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위원 구성의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한 대로 전체적인 심의시스템을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7기 위원회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안전번호 814호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과 관련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본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우리가 회의를 시작할 때 노조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815호 안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조위원장 말씀을 잠깐 들겠습니다.

○김선옥 노조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노조위원장 김선옥입니다.

1박 2일 동안 나주까지 오셔서 워크숍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고단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 먼 곳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직원들이 많아서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어제 대자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대자보를 쓴 것은 여태까지 위원회라는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못 했던 것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위원회와 사무처가 함께 하나의 지향점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혁신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제 워크숍 때 보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참 아쉬운 것이 그때 노조와 얘기가 되었으면 조금 더 많은 문항들이 있었을 텐데 대자보가 나오는 시점과 결과가 나온 시점이 달라서 고려를 하지 못하고 대자보를 작성했는데요. 다행히 내용은 항상 비슷했어요. “다행이다.” 라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 보셨던 자료집의 49쪽을 보시면 직원들이 기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문구가 “위원회와 사무처는 one team 이다.”, “다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개선할 부분은 발맞춰서 나가자는 내용 등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자보에 담지 못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7기 위원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을 하는 이유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대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안건 심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이원재 위원

- 어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조와 한번 간담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자보 내용도 있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회와 간담회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욱 노조위원장

-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위원회 자리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분들은 간부들로 국한이 되잖아요? 그러나 직원이나 신입은 이 회사에 들어온 목적이나 이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 어떤 정책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답론을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윤주 위원

- 참고로 어제 대자보는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여직원회가 따로 있나요?

○김선옥 노조위원장

- 여직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강윤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부터 마음에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슬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서울에서 오니까 너무 먼 거리다.”, “직원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노조위원장님은 직원의 복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뭔가 열패감처럼 얘기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을 때 매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도 피곤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예술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해서 예술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가급적 안 해 주시면 열패감을 덜 느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작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전체 분야를 망라해서 의결할 때 포함된 내용이고요. 하반기에 정시공모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후차적으로 별도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붙임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사전제작 단계 지원의 일환으로 저희가 프리프로덕션 지원을 표방하고 있고요. 그 중에 실험활동이라는 사업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특정 장르에 얽매지는 작업이라기보다 여러 장르 간에 융복합 등 자유롭게 장르를 넘나드는 창작활동이 가능하고 꼭 창작발표가 아니더라도 리서치나 워크숍 등 준비단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임에 보시면 선정단체 중심으로 써놓았습니다. 다원예술이라고 공모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꼭 다원예술이라서 다원예술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고 장르가 모호한 것을 다원예술로 명시했는데요. 어찌됐든 전체 장르 간을 넘나드는 것을 최대한 용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을 해 왔고

요. 이제 4년차인 사업입니다.

21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폭증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이 끝나고 진행했던 과정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보통 작년과 올해는 마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결과보고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현장 사람들이 모이다보니까 네트워크도 활발해지고 입소문이 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폭증을 한 관계로 당초 4월 심의 예정이었으나 물리적인 심의 준비 여건 때문에 5월에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430건이 신청되었고 그 중에 1차 서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서 총 15건의 지원대상 단체와 개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저희 심의위원 운영 방침에 따라서 사무처 2배수, 위원 2배수로 해서 총 4배수 무작위 추첨을 거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르적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어야 해서 장르별 심의위원 5인을 안배해서 구성했고요. 특히 다원예술이나 행정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맥락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속성을 반영해서 유관기관 전문가 2인까지 모셔서 총 7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신작과 같은 날 전후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붙임 이하 심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도표가 이어지는데 신청단체가 서두에 나와 있고 총평까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짧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815호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은선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전체 영역을 통 털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야별로 뽑는 것인가요?

####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장르별 심의가 아니라 통합심의로 진행을 했고요. 장르별 안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어느 특정 단체가 아예 선정되지 않거나 극단적인 경우만 레퍼런스를 공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유은선 위원

- 그러면 지금 선정된 팀이 12개 팀이죠?

####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15개 팀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게 포기를 하는 단체가 나올 수 있더라

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해서 선정단체 중에 1~2개 단체가 빠지는 것에 대비해서 예비로 탈락자 중에서 순위를 규정해서 추가로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시백 위원

- 최근 문화예술의 기조가 탈장르적이고 융복합이라는 화두에 부응한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몇 가지 드릴 제안은,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관심들에 대해 충분한 뒷받침이 될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사업의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에 있는 ‘올해의 신작’ 항목에 비해서 37.1%가 선정된 것에 비해서 이번 창작실험활동지원은 2.0%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앞의 사업은 오히려 잔여예산을 남겼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이런 사업의 사업비 배정에서 균형 있게 이쪽으로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안으로 앞 사업의 잔여예산을 이쪽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현실적으로 잔여예산을 이쪽으로 추가 배정하는 부분은 재심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계속 200건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다만, 3억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4억으로 1억이 증액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창작산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자체가 오히려 더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험활동, 신작 등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험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신작이나 다른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늘리는 제로섬 게임이 있었습니다.

#### ○이시백 위원

- 예,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존 창작지원은 개인 창작자들의 경제적 현실을 지원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존 장르별 창작지원의 형태가 협소하고 더 이상 확대할 노력들이 장르 이기주의로 취급을 받다보니까 확산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탈장르를 통해서 장르가 협업하는 형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프로젝트가 아주 많고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의 주제에서 실험성에 방점을 두신 것 같아요. ‘창작실험활동’ 이것은 제가 볼 때 다윈이라든가 협업에 주제를 맞춰서 장르 간 콜라보에 주력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응모하는 분들한테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취지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술다양성 사업으로 20억이 편성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사

업으로 14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사업들 규모가 확대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 세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예, 그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신청이 430건인데 선정이 15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방도가 있으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위원

- 21페이지에 심사위원 구성에서 다원예술 분야 심사위원은 유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위원회 1기 때도 많은 작업을 해서 다원적 가치라는..... 위원회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원예술은 장르에 묶이지 않는 것들을 그냥 하나로 모아놓은 건데요. 그때 다원예술의 정의나 다원예술적 가치에 기반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원예술 심의위원은 다른 심의위원들처럼 심의위원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유관기관으로 제한하다보니까 뒤에 표를 보면 세부 분야에 '유관기관'으로 표현된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유관기관에서 오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유관기관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원예술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표시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잘 알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에 있어서 장르를 안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정된 내용에 있어서 전통은 빠져 있어요. 이렇게 발표가 났을 때 전통예술 쪽은 1명도 없는 게 되잖아요? 사실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창작산실이라는 지원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예 1개 팀도 없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심사기준이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통은 배제되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절차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1차 서류부터..... 사실 430건에 대해서 자택에서 한 달 넘게 채택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전수검토 의견을 다 써오시고 그것에 대해 심층 토론을 하는 과정을 2차 심사를 통해서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서류가 부실하거나 사업의 목적 취지를 이해 못했거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 자체의 이해가 잘못된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전통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르 안배의 관점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억지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2차 인터뷰 심사 때 확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심의 때도 발전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비로 넣을 수 있었던 것은 탈락되었지만 탈락된 단체 중에서 우선적으로 나왔다는 단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저도 비슷한 문제를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통합심의를 했고 지원의 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지금 심의결정 세부 내역에서는 비교에 어느 분야인지가 나오는데 탈락한 부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 전통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안 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시된 자료집만 갖고 보기에는 예비후보자가 2개 팀 모두 전통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대로 탈락자 중에는 전통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사위원의 부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게 되면 심의공정성이 투명하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심사위원은 있어요.

○박종관 위원장

- 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은선 위원

- 심사위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소리꾼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풀로 가동해서 선정했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풀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통합심의를 사실 자기 장르사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장르에 대해서 상호 소통을 통해서 장르를 넘나들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런데 저는 심의위원 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창작산실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전통분야는 자기의 전공분야를 보는 것이지만 창작 작업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선별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창작산실 자체는 그 팀들이 최고의 팀들이 창작활동을 하겠다고 기획서를 내

는 것인데요. 물론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너무 부실한 것이 지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같은 경우 연출이나 창작가가 있는데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심의위원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많이 걸거든요. 그런데 그런 팀들이 어떤 이유로 다 탈락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1차 탈락, 2차 탈락이 되었는지? 과연 심사위원들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과연 심의위원 풀에서 국악이라는 것으로 들어와서 같이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과 부분적인 특성까지 볼 수 있는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심의위원 풀로 봐서..... 신작도 마찬가지로지만요. 신작은 그래서 전담심의위원체로 운영을 했고요.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실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현장 감각적인 부분들은 저도 같이 교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가 심의위원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심의위원 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구성의 섭외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는, 그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최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로 모시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상의 문제나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어서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창의적인 독창성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향후 공연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기준에 입각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은선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차 심사와 2차에서 빠진 분이 계시잖아요? 사실 2차 심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와 2차가 모두 가능한지를 심사위원 위촉할 때 물어보거든요.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빙모상으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유은선 위원**

- 예, 그러면 대체로 다른 분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그 부분은 1차 때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시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30건 중에서 15건을 뽑으면 3.48%가 되는데요. 이런 마이크로 지원율에 대해서 결과를 거꾸로 보면 굉장히 많은 한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같은 경우에도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비율은 만족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제대로 키워서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처장 보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보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도 제안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의 분야를 보면 영상이나 기술을 활용한 팀들도 있고요. 사운드 프로젝트 분야도 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심의위원에 영상이나 인터랙티브와 관련된 분들이 추후에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분야를 모르는 분들은 그런 프로젝트가 올라왔을 때 이해하기가 그쪽 전문가들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운드아트나 인터랙티브, 영상, 미디어와 관련된 심사위원이 한 분 정도는 꼭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추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여기에 계신 우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정통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남산예술센터는 이미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외부의 심의위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래서 아까 제가 전담심의위원회 확대라든지 심의위원 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완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올해 것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추후 사업이 지속될 때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장르에서도 심사위원을 모실 때 그게 가능한 분들을 그 풀 안에 넣습니다.

**○이원재 위원**

- 논의에 대한 제안인데요. 심사 시스템이 오랫동안 축적되고 보완되면서 만들어진 심사

결과잖아요. 제 생각에 얘기해 주신 내용들은 많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건별로 얘기하면 안 끝나고요. 아마 쟁점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심사위원 풀 제도나 선정방식들에 대해서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정률 추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브리핑이나 스터디를 한번 하고 거기에서 심사지원사업의 쟁점들을 가지고 토론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 번에 정리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오늘은 개별심사 자체에 대해 의결을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 ○박경주 위원

- 그런데 7기의 첫 번째 심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게 전체 흐름에서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하고요. 질문 자체를 막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원재 위원

- 질문을 막는 것은 아니고 쟁점이 많아서 그래요. 아까 심사위원도 쟁점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잘못하면 심사프로세스의 불필요한 개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르의 안배라는 건 타당해 보이지만 그렇다면 심사 풀이 20~30명이 되더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공연예술로 들어가면 “마임 전문가가 없다.” 이것은 늘 등장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토론에 case by case로 심사위원까지 언급되기 시작하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이것은 처장님이나 우리 사무처에서 대안을 좀 내주면 어떨까 싶어요.

#### ○전효관 사무처장

- 예, 하나는 저희 심의제도를 작년에 공정심의부에서 풀 구성과 절차 관련해서 개선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일정한 시기를 잡아 전체 개요를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정성과 가치 지향에 따른 쟁점부터 시작해서 “장르의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서 개선점에 대해서 토론하면 어떨까 합니다.

#### ○강윤주 위원

-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식의 개별 회의의 논의도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말씀하신 개론적인 강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경주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안건 결의를 하는 상황인데요. 차후에 그런 설명을 한다고 지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것도 소중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스피드로 나가면 담양을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오후 일정을 취소할 수도 있죠.

○박경주 위원

- 저는 담양에 안 가도 됩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스피드라거나 담양 문제는 쟁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강의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하는 프로세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막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는 다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인 지원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하다보면 첫 회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느꼈던 것들이 모두 나오게 되잖아요. 그 방법보다는 그것은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박경주 위원

- 특히 이 파트에서 말이 많은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여기에 지원신청을 한 단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진짜 소수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와서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미리 보내주셨고 집에서 읽어보고 숙지를 했습니다. 숙지하고 난 후에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선정률이 3%라고 하면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한계가 많을 겁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이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창작을 시작하거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좋아하는 분야인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떤 것인지를 보고 싶은데 그냥 ‘탈락’이라고만 쓰여 있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많아질까?” 올해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갑자기 지원이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긴 논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의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 아르고 청년예술가지원(2차)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50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 816호 2020년 아르고청년예술가지원(2차)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원래 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정시공모를 했는데 신청건수가 너무 적어서 60% 정도만 저희가 활용을 했고 나머지 40%인 3억 9,000만 원을 이번 2차 때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앞에서 나왔던 사업처럼 굉장히 지원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1차 때보다 5배 정도의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급하게 기금운용변경을 해서 1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포기가 있어서 불용액 500만 원을 합쳐서 총 13억 9,500만 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의 지원신청 건수를 보시면 1,287건이고 선정은 161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에 나왔던 적격자심의 관련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2배수 분야별 전문가(비상임위원) 2배수로 해서 4배수로 무작위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작위 추첨은 아니고 편중되지 않게 성별과 지역을 포함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 현황은 51페이지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 시각, 다원, 다원, 전통, 공연예술 등 5개 분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지원신청 건수와 선정건수 역시 5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부서는 시각과 다원을 했고요. 문학은 각 문학부서 그리고 공연 쪽은 공연창작부에서 지원을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좀 특이하게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을 우대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공모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를 보시면 수도권과 지역의 신청률 대비 선정률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4.8%로 해서 수도권과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1건 중에서 56건이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3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심의결과 발표는 6월 2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발표 내용은 모든 지원사업이 동일합니다. 추진경과 및 심의위원 명단, 종합 심의평, 지원대상 선정내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6월 16일 화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부터는 지원심의 결과 그리고 58페이지부터는 문학분야 지원심의결정 총평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각, 전통, 다원 등으로 붙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에서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유가 뭐가요? 홍보가 안 되었나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만 가능하고 예술위원회에서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거든요. 이 사업이 2019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10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처음 공모를 할 때는 600여 건이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신청을 해도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안 받으면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00여 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도 있고 집에서 신청서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추정하기에는 1차 공모는 정시공모와 동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시공모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나가다보니까 별도로 이 사업을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모건수가 늘고 있는 건 거의 모든 공모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원의 구조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요인이 1차와 2차의 차이 라고 봅니다.

○박경주 위원

- 두 번째로 여기에는 심사회피 제도가 작용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건이 없었던 것 인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심사회피가 있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시각 쪽에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 경우에는 1,287건의 신청을 받아서 161건을 지원해서 12.5%의 지원율이었

는데요. 그나마 이 정도의 지원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추가예산을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사업이나 예술인들을 지원했을 텐데요. 그나마 이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네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공모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황진수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안건번호 제 817호 2020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2차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2차 심의에서 지원결정건수는 138건을 선정하였고 20억 2,870만 원을 지원결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제교류사업은 크게 2차 공모가 4개 있었고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과 청년예술가 해외진출지원은 별도로 1차 없이 이번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공모안내는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였고 접수는 3월 5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4월 말까지 구성해서 위촉하였고 지원심의회는 실질적으로 5월 6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저희가 2차 공모로 한 대상사업들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 중에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최종 집행 및 정산은 2021년 2월 말까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2차가 힘들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등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통해서 2차 공모 국제교류지원사업의 선정단체가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단체를 예비후보로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음악과 전통예술 분야는 위원님들이 예비후보를 기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하지 않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차순위 단체가 예비후보로 하고 예산 배정 권한은 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정 포기단체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31일까지 포기 접수된 사업에 한하여 차순위로 배정하는데 8월 31일 이후에 포기할 경우에는 불용처리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액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업별로 배정액은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방식과 절차입니다.

저희가 총 4개 단계로 진행되었고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사업 같은 경우는 인터뷰 발표심사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의결을 받기 위해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내용과 심의기준 및 심의가중치는 공표하여 지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으로 지원신청 현황은 2019년도 2차 사업에 비해서 165건이 줄었고 신청액도 3억 5,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2019년도 정시공모는 신청건수가 473건이었고 2020년 정시공모는 453건이었습니다.

2020년 정시공모 선정건수는 134건에 20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총 6개 분야의 장르별 심의위원을 구성했고 별도공모사업인 남북문화예술교류와 청년예술가 진출지원 사업은 6개 장르를 통합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르심의회는 분야별로 5인을 모셨고 통합심의회는 6인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2배수, 장르별 위원님께서 2배수로 추천해서 구성한 이후에 무작위 추첨으로 섭외순위를 결정해서 위촉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심사 당일 시각예술 심의위원 1인이 발열증상이 있어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127페이지를 보시면 날짜와 장소,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모든 심의에 대해 전수검토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모두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전전수검토 의견을 받아서 검토가 끝나신 분이 자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점은 온라인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 청년 같은 경우는 인터뷰와 발표심사를 했는데요. 특히 해외에 계시거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영상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구체적으로 장르별 내용이 되어 있으니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들은 어떤 부분은 지역 최소보장제를 적용하는데 국제교류사업은 최소보장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동일한 경우에는 지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심의회피 129페이지를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총평과 심사위원 명단,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2차 공모 지원심의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형', '비지정형'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레지던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관계를 맺고 있는 26개 해외레지던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정형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뽑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 측에서 뽑는 경

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형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선정해서 신청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8페이지를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중총량지원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개 단체나 동일인이 3억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외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1개 단체가 해당됩니다. 단체는 '한국창작음악제추진위원회' 고 대표자는 이건용 선생님입니다.

한국창작음악제 3억 원이 결정되었고 이번에 국제교류사업에 독일 한국 창작음악 페스티벌 1,000만 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서 특별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유은선 위원

-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전통분야 5건 선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팀이 선정되었나요? 153페이지를 보면 전통분야 5건 선정이라고 되어 있고 단체이름은 안 보입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150쪽에 있습니다.

○유은선 위원

- 130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심의 회피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심사를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심사에 와 있다가 그 시간에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심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잠깐 나가 있으면 굉장히 애매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사업에 참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본인이 지원신청을 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선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참여자이기 때문에 심사에는 왔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빠졌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 참여자고 단원이라고 해서 같은 맥락에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만 회피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심의위원 사이

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연관된 단체가 있으면 일단 심사 때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채점은 안 하지만 심의위원들 간에.....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들끼리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빠져 있더라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회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조기숙 위원

- 그리고 1개 단체나 동일인이 3억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면 제한을 해야지 왜 심의를 합니까? 저는 제한으로 알고 있었어요. 원칙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제한은 아니고요. 3억이 넘었을 때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희경 위원

- 지금 국제교류사업은 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것인데요.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술가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술가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 심사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모든 사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단, 도중에 갑자기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불용액은 빨리 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후보제를 8월 31일 까지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조기숙 위원

- 여기 다중지원총량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 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을 한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해서 선정되고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희경 위원

- 그 문제는 서울연극협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울연극협회가 맞나요?

#### ○박종관 위원장

- 한국연극협회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연극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의결하기는 했고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아르코 창작음악제의 취지에서, 작년에도 사실 국제교류 사업을 하였고 개별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르코 이름으로 올리셨는데요. 그것은 어쨌거나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기재부에서 공모로 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저희 남북교류사업도 작년에 했던 것 중에 불용예산이 생긴 게 있어요. 이것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교부가 안 돼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업은 저희가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단체들한테 필요한 얘기인데 10월, 11월에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리허설도 해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는데요. 하다가 못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준비한 것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다중지원 총량제한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스의 하단에 보면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 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3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3,000만 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억 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희경 위원**

-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창제가 대한민국대표예술제에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3억이 넘을 겁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죄송한데 그것은 약간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 하면 작년도에 모든 사업을 공모로 돌렸잖아요. 그러면서 공모에 대해서 주관처를 뺏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아르코로 붙어있는데 주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희경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창제에 대해서 별도로 기획사업으로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2020년에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공연창작사업에서 아르코 창작제는 저희 주관사업으로 안 보고 이름만 그냥 쓰고 있고요. 단체는 일반 공모사업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총량제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에 올라와서 본부장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곤란합니다.

○이희경 위원

- 국제예술교류사업은 제가 알기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올해 말까지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년 6월까지 원칙적으로 공연을 안 하는 것으로 정책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 유럽이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 결정을 하면 이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총량제한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논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희경 위원님이 폭넓게 지적해 주신 “대규모 불용이 예측되는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세울 것인가?”와 관련해서 일단 부서장과 본부장의 의견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국내외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민간예술단체에서 신청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일일이 사전에 1차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향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포기를 안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황진수 부장이 말씀하실 게 있나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지금 이 순간도 이 문제는 계속 있는 것인데요. 심사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물어보셨고요. 이것을 보시면 나라별로 사업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확일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심의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편으로는 현장에 산소호흡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혹은 기금 같은 경우 기금운용변경을 통해서 수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하나가 지원 결정된 부분에 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부분 진행이 된 부분. 지금 창작산실, 중장기지원 등은 거의 인정해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스텐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사한 목적으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경 위원

-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조기숙 위원

- 참고로 A라는 조직에서는 올해 국제사업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B라는 조직은 본인들이 너무 귀하게 준비를 해서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올해 안해도 내년으로 연장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다만, 저희들 내부에서 올해 결정된 부분이 있고 내년 예산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내년까지 연기한다는 것은 힘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 논의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했고요. 올해 결정되었지만 상대방 국가의 사정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기회를 다시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당연히 가져간다는 것까지는 결정하기가 힘든 것으로 내부에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 불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추가 선정이나 불용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 배정되거나 기 지원된 것들은 최대한 준비과정에서 소요된 예산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원재 위원

- 현장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 불안함이잖아요. 그런 논리들이 정리돼서 사전에 합의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나 결국 그때 가봐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국제교류 외에도 예측한 시나리오 모델들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먼저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빨리 말해 주는 게 대응할 수 있고 예산도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경주 위원

- 저도 이원재 위원 의견에 동의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지로 결과발표가 나가기 전에 약간의 토를 달아서 이것은 추후 상대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협의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떨어진 사람들이나 공지를 본 사람들도 “도대체 가능하기는 해?”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 공지가 나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경 위원

- 그것은 장르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사실

악용될 소지도 있거든요. “어차피 안 될 것인데.” 라고 현장에서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기준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준비과정을 최대한 인정 그리고 대체 사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기간의 연장인데요. 하나 정도를 더 말씀드리면 자부담 면제까지 포함하고요. 그리고 대체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최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요. 사무처장이 얘기한 대로 적극적인 불용과 관련해서 빨리 대체 사업을 잡는데 통 동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성안해서 당연히 상의를 드려야 할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준비해서 상의를 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건이 있는지?”, “연기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연기가 많습니다.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접수는 3월 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15일 정도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연락을 다시 드려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받아서 심의할 때 안내를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아창제를 논의해도 될까요? 사무처 의견이 정리되었나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원래 아르코는 창작음악제는 지정사업으로 해서 주관처 공모의 성격이었는데 지난번에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전체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논의대상이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가 차이가 있죠?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작년에 저희가 지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4억 예산으로 지원했다가 심의과정에서 1억이 줄어서 3억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제가 3억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아창제는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과는 좀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아니어서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저도 심의에 참석을 안 해서요.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에서 심의에 참여한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희경 위원

-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아창제의 이름을 걸고 독일에서 공연을 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지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지금 아창제 추진위원단이 따로 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3억 이상을 할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례는 연극협회도 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조기숙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한 원칙으로 잘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박스에 있는 유권해석이 3억 원 이내로 제한하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종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 조정의 권한이 액수를 포함한 것인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버되는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유권해석이라면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가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그 권한까지 위원회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0%로 총량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르코창작음악제의 추진위원회가 사업주관처의 성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원재 위원

-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끝나는 것인데요. 처음 문단의 해석이 3억 내로 제한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3억이 오버되더라도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조정할 권한이 위원회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예, 조정할 권한이 위원회에 있습니다. 무조건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별로 해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심의해서 결정된 대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다중지원 총량제한의 취지는 1개 단체가 굉장히 여러 사업에서 받을 때 3억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극협회나 아창제 같이 규모가 큰 페스티벌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초과되는 사례는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승인한 적은 있습니다.

#### ○이원재 위원

- 그러면 저는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밑의 규정과 상관없이 초과액이 10% 이하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의 성격이 개별지원사업의 총량제 조정사업보다는 아르코라는 맥락이 있는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3억 1,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 ○조기숙 위원

- 저는 특별한 입장보다는 평생 지원을 해도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한 많은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들이 볼 때는 “큰돈을 특정 단체에서 저렇게 많이 받아 가는데 도대체 나는 뭐고 우리 팀은 뭐냐?” 이런 좌절감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이 받은 쪽은 양보를 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 그런 것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 개인 의견은 제한이라는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희경 위원

- 예, 조기숙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알겠고요. 약간 사안이 다르다는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르코창작음악제는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창작음악축제처럼 대한민국 작곡자들의 작품들을 전통과 서양으로 해서 10명 정도가 발표를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단체의 성격으로 안 봐 주셨으면 합니다.

#### ○박경주 위원

- 저는 어떤 특정 개인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창작음악제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하니까 n분의 1로 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은선 위원

- 저는 사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아창제는 기획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라는 분이 어떤 단체를 운영해서 갖고 가는 것은 아니고 경연대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 것 자체가 의아하기는 한데요.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만하게 합의하신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기숙 위원

- 그렇게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아창제의 경우 독일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이시백 위원

- 현안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국제교류사업 자체에 대해서 2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자들의 역량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개인적인 지원에 머무른 것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상주 프로그램 이후에 돌아와서 공유하거나 소통하는 추가 프로그램이 있나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공유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시백 위원

- 제가 그동안 문학 분야에서 보면 개인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온 것은 좋았는데 그것이 많은 기회를 얻고자 했는데 가지 못한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확산되는 게 없던 것이 유감스러웠어요. 이렇게 귀한 사업이고 예산도 적지 않게 투입되는데 심의기준을 마련할 때 사후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해서 선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이 얻은 견문이나 역량을 발표하고 전시하고 보고하고 기록하고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것까지의 예산을 배당해서 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관심 있는 작가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이게 개인 상주 레지던스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팀별로 그룹별로, 예를 들어 유목문화에 관심이 있는 작가나 화가들이 단기로라도 답사·기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공모에 포함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예, 참고로 최근에 팀도 가능하도록 열었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첫 번째 말씀하신 레지던스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를 하는 이른바 성과공유 차원에서 강화하는 게 맞고요. 아마 저희 국제교류 사업이 단순해 보이실 겁니다. 원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는데 국제교류재단에 넘긴 것도 있고요. 원래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사업들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외레지던스 사업과 아라온호 승선 등 특화된 사업들만 남아 있는데요. 그 조차도 어떻게 확대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따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힘을 내서 회의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섯 번째 의결안건은 2020-2021 국제예술공동기금 ‘한-싱가포르 상호 교류 협력 프로그램’ 아르코 총괄 기획자 선정 공모 계획(안)입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안건번호 제 818호 2020-2021 국제예술공동기금 ‘한-싱가포르 상호 교류 협력 프로그램’ 아르코 총괄 기획자 선정 공모 계획(안)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는 지난해에 저희 예술위원회와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 간에 양해각서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양 국가를 대표하는 해외예술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양국 예술계의 조사연구, 예술 교류 및 창작 협력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국제적 예술 교류와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가칭 ‘아르코 총괄 기획자’ 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지난해에 예술과 기술 「Arts & Technology」 라는 주제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공모대상은 필수조건과 선택요건이 있습니다.  
필수조건은 최근 5년 이내에 국제교류사업 기획 및 연출 전문가로서 경력을 가지고 계시며 높은 이해도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하였고요. 선택은 ①과 ② 중에 하나의 조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안입니다.

사전리서치를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비대면 방식의 접근인데요.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싱가포르 측에서도 총괄 기획자가 선정되면 그 분과 협의해서 진행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이쪽 분야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국제심포지엄을 기획할 수 있는 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저희가 볼 때는 퍼실리테이터 또는 총괄 코디네이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나 예술가들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고 정보를 가지고 계시며 싱가포르와 잘 협의할 수 있는 분을 모시는 안입니다.

지원예산규모는 5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이 프로그램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입니다.

그리고 선정방식(안)은 아래 표로 만들었는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18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저희 사업들을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국제교류사업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아르코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일반공모사업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아르코 국제공동기금 사업은 저희가 주도해서 타국의 대표적인 예술기관하고 공동의 기금을 마련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2~3년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들은 사전리서치와 대표단 파견, 사업이 정해지면 우리 예술가들에게 공모방식으로 주로 했습니다. 참여예술가를 모집해서 지원하고 그 결과는 심포지엄 방식으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4기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1기 때는 영국예술위원회와 함께 이 사업을 했고 그 때는 예산이 25억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밑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21건을 선정해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는 독일과 했습니다. 독일문화원과 같이 했는데요. 그때는 2억 6,000만 원 정도의 작은 예산으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와 2019년도는 덴마크예술위원회와 6억 9,000만 원 정도로 심포지엄까지 하고 공모사업으로 12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싱가포르는 지난해에 MOU를 맺었고 올해 리서치를 하고 내년도에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내용은 190페이지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싱가포르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나름대로 협의된 바는 올해는 리서치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자간에 저희와 국립 싱가포르예술위원회 그리고 양국에서 뽑는 총괄 기획자가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이 협의는 작년부터 되었지만 연초에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벌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긴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측에서는 디지털포럼 등을 고민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와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도 최근에 개학하고 있고 셋다운을 풀고 있

는 상태에서 6월 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디지털을 활용해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 비대면 프로젝트. 예를 들면 디지털가상전시회나 라이브 스트리밍, 디지털아트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 등 온라인을 통해서 리서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쪽 분야의 레지던스 플랫폼을 신규로 발굴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난 1기, 2기, 3기와의 차이점은 총괄 기획자인데, 전에는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기획자를 뽑아서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측과 얘기되고 있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아트센터 나비, 싱가포르에서는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로 두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네덜란드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파트너와 과거 영국, 독일, 덴마크를 포함해서 함께 한국과 싱가포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올해 리서치를 하고요. 협업 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193페이지입니다.

총괄 기획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많은 말씀을 나눠 주셨고 지난 6기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모 계획(안)을 만들었고 자문을 지난 11월과 올해 4월에 거쳐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봐 왔고 잘 아시고 계신 이희경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듣고 의결이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공모(안)을 공고해서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총괄 기획자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구성 방식인데요. 오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적격자 안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이쪽 분야에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드리면 이런 사업에 대해 잘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것을 후보군으로 해서 예술위 위원님들 중에 국제 분야의 전문가..... 저희는 일단 이희경 위원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쪽 분야의 후보군을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섭외해서 위원장님이 최종 위촉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자격 등이 나와 있고요. 총괄 기획자가 처리할 업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될 것이고요. 심의 평가내용이나 제출서류는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은선 위원

- 덴마크하고 했던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사실 오늘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는데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덴마크와는 2018년도에 1억 3,000만 원, 2019년도에는 5억 3,000만 원으로 했고요.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덴마크 문화청과 주한덴마크대사관과 사업을 했습니다. 총 리서치는 13건 했고요. 그 다음에 양국 문체부 간에 MOU체결을 통해서 2019년 한-덴마크 상호문화의해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동프로젝트로 12건을 추진했고 국제 공동 심포지엄을 2019년도 2월 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서치 같은 경우는 '씨댄스'가 신작 제작이나 리서치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테지'에서 덴마크 예술센터 쪽과 협업을 해서 리서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 같은 경우는 '아트선재센터'와 '김치앤칩스'라는 곳에서 안무가와 협업 또는, 특히 '김치앤칩스' 같은 경우에는 물질과 빛물질 등 주제를 작업을 영상화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태림 위원

- 저도 여쭙볼 것이 있습니다.

NAC측과 아트센터 나비, 싱가포르 기관 내 레지던스 구축 논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트센터 나비가 레지던스 구축 논의대상이 된 근거가 따로 있나요?

○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A&T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알고 있는 단체가 아트센터 나비고요. 일단 이것은 예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이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가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홍태림 위원

- 이것은 나중에 감독이 정하게 되나요?

○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감독과 저희 그리고 싱가포르 측 등 3자가 리서치를 하고 가능한지를 타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희경 위원

- 용어를 감독이라고 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예, 맞습니다. 총괄 기획자입니다.

○정유란 위원

- 196페이지 총괄 기획자 수행업무 밑에 연도별 예술감독 수행업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예술감독 역할을 총괄 기획자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이것은 오타입니다. 작년에는 예술감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의견 속에서 “예술감독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은 아니다.” 라고 이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을 총괄 기획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나 퍼실리테이터 개념으로 수정을 했고요. 싱가포르 측에서도 프로듀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고쳐나갈 것이고요. 앞으로는 총괄 기획자로 나갈 것입니다.

○유은선 위원

-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추천을 받는다고 했던 것과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건가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그렇습니다. 총괄 기획자는 공모로 할 겁니다. 그것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윤주 위원

- 저는 공동기금 사업 상대 국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영국과 시작할 때는 영국예술위원회 측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시작은 되었는데요. 현재 문제는 문체부나 계기가 있을 때 맺어지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작년에 VIP께서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전체적인 국가 정책을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면서 아세안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화두가 나왔고요. 그때 싱가포르예술위원회와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때 MOU를 맺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내년도가 수교 70주년이 됩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예술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예술 외적 가치 때문에 그때그때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사업이라면 전문가들이 지금 예술계의 흐름을 볼 때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여기로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제일 약하고요.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 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은 7기 위원님들이 오시면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반향을 잡아갈 생각입니다.

#### ○강윤주 위원

- 저희가 국제교류 소위원회 관련해서 TF에서 얘기를 나눌 때도 지금까지 국제교류라는 게 한정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레지던시 위주로 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체계성이 없는 것을 봐서 소위가 만들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추진이 되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 ○조기숙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1기, 2기, 3기로 영국, 독일, 덴마크를 하고 나서 후속 사업이나 지속가능하게 된 조직이 있나요? 그 이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영국이나 독일, 덴마크 쪽은 작년에 심포지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을 통해서 Arts & Technology 라는 공동의 이슈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작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실제로 공모사업을 보시면 직접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나라의 업무를 하거나 신청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이걸 말 그대로 공동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낸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돈을 내는 사업이라서 파트너를 고르는데 있어 약간의 계기성이 작동되는 게 현실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어렵게 파트너를 고르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잘 짜서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모절차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박경주 위원

- 저도 추가 의견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기금이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매일 “한국문화계는 노벨문학상을 언제 받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문학인들 교류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그래서 이희경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위원님이 계시면 선정위원회 구성이 힘들지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 분이 들어와서 잘 뽑아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자문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꼭 공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추천을 받아서 해도 되지 않나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일단 싱가포르 측과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싱가포르 측과도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강윤주 위원

- ‘아르코 국제예술공동기금’이라는 이름을 단다는 것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해 주신 선생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계기성이라고 고백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펀드이기 때문에 계기성이 있고 그런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면 ‘아르코 국제예술공동기금’이라는 이름하에 일종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외부로 내보낼 때도 이런 이유로 라인업을 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예,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저희가 10년 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유럽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조금 더 다양화해야 한다.”, 그래서 싱가포르 측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적인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나 경제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국가라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약간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와 하게 된 것은 정해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Arts & Technology 로 집중하게 된 이유는, 사실 한 나라의 예술계는 다양하지만 싱가포르가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게 Arts & Technology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집중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처음에는 사전리서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불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하다보면 무슨 리서치가 되겠냐고 해서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공모가 필요하냐?” 저는 공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총괄 기획자라고 하는, 특히 Arts & Technology에서는 30대, 40대로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분이 들어오게 하려면 공모를 해야 하고요. 단 그런 분들을 잘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게 중요한데요. 다행히 11월에 제가 자문했던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각 분야의 여러분들과 이미 접촉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문의를 드리면 저희가 잘 모르는,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도 이번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한다는 의미에서도 공모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백 위원

- 조금 전에 박경주 위원님 말씀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예술공동기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Arts & Technology’ 영역이 명시되지 않는 한 선택요건의 지원대상에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외에 문학도 명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원재 위원

- 저도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요. 한편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사업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국제교류의 성과들이 축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로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교류를 모색한다면 제한된 조건 안에서 우리의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추천되는 분들이 단발적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르코의 국제교류 네트워크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게 기존에 기관교류나 국가교류 수준을 넘어서 예술적 가치나 예술적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생태계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외국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서 서울 기준으로 하면 예산과 상관없이 연결하려는 주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아르코가 중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이,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준비되면서 매년 사업마다 목표치를 가지고 주체들이 축적되는 내부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강윤주 위원

- 그리고 저는 이번이 특별한 상황이니만큼 국제예술공동기금 성격에 맞게 한 국가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는 온라인포럼 같은 것을 이 기금의 일부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 하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이 주가 돼서.....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주가 돼서 의회를 주재하셨던 것처럼 예술가와 예술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르코 국제예술공동기금의 위상을 올리는데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지자체나 국가의 단위로도 외국의 예술기관이나 예술대학들이 부지를 제공하면 들어와서 활동하겠다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지형도를 파악하고 그 지형도 안에서 예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 짓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는 소규모 예술가 교류로 진행하지만 제가 알기만 해도 서울시에서 땅을 어느 정도 주면 영국의 어느 대학이 어디까지 만들겠다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지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윤주 위원

- 언뜻 생각하면 각국의 예술위원회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적합한 것 아닐까요? 그것은 예술위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박종관 위원장

- 동일한 양만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고를 드리면 리센룽 총리가 작년에 국민 방문했을 때 제가 청와대에 직접 들어

가서 교류와 관련한 보고를 했고요. 그 직후에 싱가포르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직접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양국이 모두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이냐는 장벽에 부딪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폭을 넓혀서 상의 하시는 것은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결을 해 주시고요. 주신 모든 말씀들은 국제교류 사업에 녹여서 향후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고필 위원

-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CC에서 이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CC를 건립하기 전에 문화관광연구원의 ○○○ 박사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예술위원회에 방문을 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 ○○○ 박사를 같이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람을 추천하는 문제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그러면 의결을 하시기 전에 관련 자료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아무래도 그간 이희경 위원님께서 봐 주셨기 때문예요.

○박종관 위원장

-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이희경 위원을 책임위원처럼요.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예.

○이희경 위원

- 혹시 관심사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네, 그러면 이희경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여섯 번째 의결안건입니다.  
2020년 1차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이 건은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자료 19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 1차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일단 198페이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연실황 생중계 사업 1차 공모에서 총 56건의 지원신청을 했고 걸격을 제외한 49건에 대해서 지원심의를 거쳐서 1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켓 보존료로 8,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99페이지부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티켓 보존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없이 네이버 플랫폼을 기준으로 공연 영상을 생중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16건이 선정이 돼서 생중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극단 산울림의 앙상블 공연 그러니까 72석으로 진행이 되었던 공연이 9,000명 이상이 관람을 하였고요. 올해 2월까지 작년도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여명의 눈동자 같은 뮤지컬은 9만 4,000명이 온라인으로 관람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억이었고요. 올해도 동일한 규모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동 사업의 예산이 3억 증액 되었었고요.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들의 지원 부분을 강조하면서 무관객 공연으로 공연 영상을 촬영하되 무관객 공연을 하는 대가로 티켓 보존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사업목적을 보시면 코로나19의 여파로 냉각된 공연예술계에 공연 관람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연예술 분야 수요 증가에 발맞춰 생중계 추진을 통한 미래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영상이 촬영된 녹화 파일은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아카이빙을 통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관람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의 위원으로 한정하였고요. 저희가 무관객 공연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1회만 진행되는 공연이나 촬영 특성상 야외 공연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원신청 접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건이 지원하였고 걸격이 있었던 7건을 제외하고 4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지원신청 현황은 수도권 39건과 지역 10건이고요. 지역 최소 보장제는 심의 때 권고하였습니다.  
지원심의 추진은 지난 5월 27일 수요일에 진행했고 심의위원 구성은 분야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심의위원 풀에서 지원 유형별로 랜덤 추출을 거쳐서 섭외순위까지 무작위

추첨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10인으로 구성되었고요. 명단은 200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지원심의를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에 진행되었고 심의기준은 공연의 작품성, 아카이브의 타당성, 공연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의 분야별 지원결정 현황은 총 12건이 지원 선정이 되었고요.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으로 선정 건수가 결정되었고요. 티켓 보존료 같은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장 규모에 따라서 정액으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 수도권·지역 신청 현황과 선정 비율을 기재했습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이 8건, 중공연장 10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3페이지부터 선정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생중계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계는 아마 7월 공연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관 위원장**

-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유은선 위원**

- 왜 티켓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했나요? 사업은 생중계 사업인데요.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생중계 사업에서 영상제작 업체는 저희가 별도의 입찰을 거쳐서 따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상 제작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객석을 비우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생중계를 해 보니까 객석 앞으로 레일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영상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티켓 보존료 플러스 중계료가 되는 거잖아요?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중계료는 단체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회만 진행되는 공연 같은 경우 제외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페라 외에 클래식 마찬 가지인데 거의 하루밖에 공연을 안 해서요. 이것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적어도 2회 정도 하는 공연이라고 하면 1회는 무관객 생중계로 진행을 하고, 사실 공연은 현장성이 중요하니만큼 이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현장에 와서 공연을 관람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1회 공연의 경우 객석을 비우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은선 위원

- 현실적으로 무관객 공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7월 이후부터는 아마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유은선 위원

- 아닐 수도 있어요.

○강윤주 위원

-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예술계에서 현장에 계신 예술가들은 이런 논리가 많더라고요. “중계하는데 드는 비용만 왕창 들고 예술가들한테 가는 것은 없다.” 이 정도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후에 코로나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고 생중계..... 아시겠지만 ‘메즈’ 같은 작품들이 그렇게 많은 관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온라인으로도 볼만한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지 않더라도 볼만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심의 총평을 보면 공연의 작품성, 아카이브의 타당성, 공연의 파급효과가 중요한 3가지 기준이고 지금은 티켓 보존료 등 이것을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공연들은 이렇게 생중계를 할 때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없다고 해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발해 나가려는 공연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면 새로운 매체, 새로운 장르가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새로운 포인트를 잡는다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은선 위원

- 연관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티켓 보존료라고 해서 관객을 빼겠다는 전제로 지원을 하지만 향후에는 정말 관객이 없이 하는 공연들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중계업체가 디렉트로 한다고 하더라도 생중계를 원하는 다른 공연팀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 하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리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생중계를 하면서 자료원에 기록하는 것과 연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카이브를 한다고 했지만 생중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원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지금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요. 3차 추경에서 일반국고로 149억 정도 규모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40억 규모로 지속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융합지원 사업 같은 예산이 확대되면서 콘텐츠의 문제까지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안건과 관련해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이것은 정산을 안 하는 것이죠?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그것은 실제로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객석을 비우기 때문에 비우는 것에 대가로 지원 하는 것이고 정산은 되지 않습니다.

○박경주 위원

- 다원예술은 지금 신청건수가 2건이고 1건이 결격인데요. 1회 공연인데 사전에 공지가 되었나요?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예. 사전에 저희가 공지를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회 공연으로 신청한 것이 7건이 있어서 결격으로 처리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박두현 본부장이 보고를 한 대로 149억이나 내년도 40억의 대형 사업들이 전개된다면 사업의 설계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20년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2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자료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2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214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문학분야 작가들한테 창작된 자기 작품집을 발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명에게 1,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총 8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상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정이 되고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2년 이내에 창작집을 발간해서 그것을 저희에게 보고해야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심의를 진행할 때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나뉘어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1차 심사는 문학적 수월성을 100%로 보고 미발표 미기명 작품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간계획과 기명 발표작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 지원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2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차라고 하는 것은 1차와 2차를 나눠서 봤을 때 2차 심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모두 합쳐서 보고를 드리고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미발표 작품을 작가들이 초고를 해야 하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 결과를 중간단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 1차 심사 결과와 2차 심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을 때 각각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 1,000만 원으로 80명의 작가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신청건수가 무려 1,174건입니다. 1,174명의 작가가 이 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선정비율은 6.9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경쟁이 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내역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2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정시공모 즉 2019년도 9월 말부터 10월에 공모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신청접수는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적어도 미발표 작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작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야는 표에 나와 있듯이 시와 시조, 소설, 아동문학, 수필, 평론, 희곡 등 대표적인 장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1차 심의를 추진한 것은 작품이 모두 수합되어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심의를 진행했고요. 이때 총 28명의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총 1,174건 중에서 163건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안배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역과 성별, 연령별 기

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비율을 최대한 고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36.7%, 여성과 남성이 각각 50% 그리고 신진작가는 30%로 해서 심의에 참여해서 1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1차 심의 결과는 3월 30일에 발표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민원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심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211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원심의 규정을 준수해서 진행을 했고요. 심의위원은 총 16인을 선정했습니다. 역시 심의위원 구성의 안배 비율을 고려해서 진행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회의 추진 경과는 각 분야별로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2차 심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발표 작품뿐만 아니라 기발표 작품, 지원신청서 즉 발간계획서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심의회피가 2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문학강좌 수강생인 관계로 심의위원 1인이 회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를 보시면 각 장르별로 선정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 시조, 소설, 아동문학, 수필, 평론, 희곡 등 80건이 선정되었고요. 여기에는 19건의 예비선정도 포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비는 혹시라도 선정된 작가 중에 결격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후에 확인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19건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의결이 된다면 저희가 6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발표는 심의 총평,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금 결정내역, 심의 추진경과 및 심의위원 명단 등을 포함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는 저희가 선정 작가 증서를 수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미이행서 필수 교육이 남아 있는데요. 6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80명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와 서울을 나눠서 한다든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심의 결정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논의를 하시죠.

#### ○이시백 위원

- 우선 1,174명이 중에 수혜는 80명이 본다는 것은 안쓰럽고 참담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사전에 논의를 한 결과 아르코 측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 크게 공감했습니다. 나중에 심의와 창작지원에 대한 소위에서 따로 논의가 된다고 해서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습니다. 다만, 2차로 나뉘어서 하다보니까 민원 발생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가장 큰 불만은 본인이 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왜 선정이 안 되었는지?”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되었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내년도에 다시 신청했을 때 도움이 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통상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합쳐서 발표했을 때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1차 심사 후 발표를 보고 “2차 심사까지도 못 갔구나.” 그래서 민원이 줄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백 위원

- 뭐라고 답변을 하시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렇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심의 경과와 각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일일이 토론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기록으로 작성해서 주십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작가의 작품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모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시백 위원

- 저도 직접 심의에도 참여를 해 봤고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혜의 폭이 너무 좁은 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는 한 담당하시는 분도 계속해서 그런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웃어넘길 수 없고 함께 성찰해야 될 문제는 블랙리스트 이후에 공정성에 대한 회의가 현장에 있는 작가들 작품성에 대한 고민보다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유은선 위원

- 지금 1차와 2차가 2개월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심사를 못 하신거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 이유는 약 30% 정도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미발표 작품 1개와 기 발표된 작품 1개를 제출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미발표 작품 7편, 기 발표 작품 7편을 제출하는데요. 1,000건이 넘는데 다 읽어봐야 합니다. 다 읽고 나서 거기에다가 본인이 평가한 의견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유은선 위원

- 이것은 기우겠지만 블라인드를 하시는 거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1차 심사는 누가 어떤 작품을 냈는지 모르는 게 지켜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면 2차를 할 때는 알게 되는 건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2차 때는 발간계획서와 기명 발표작, 그리고 발간계획서까지 고려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간이 많다보니까요. 물론 읽는 시간을 감안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유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심의위원을 구성하다보니까 대규모의 심의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기간을 단축시켜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심의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문건을 검토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한 양의 작품을 보는 심의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들이 적절한 심의 사례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은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에서 창작활동 시작의 기준이 있잖아요? 많이 완화된 것을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문학계라는 게 등단 문턱이 높고 가끔 신춘문예 발표 난 것을 보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시작 후 5년 이상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이 사업은 기존에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구분해서 신진작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대상층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인데요. 참고로 말씀하셨던 등단이라는 것은, 여기에 등단이라는 용어를 작년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등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요즘 젊은 작가들 또는 다양한 작가들한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단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공고 내용에는 충분히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공고를 할 때는 창작활동을 시작한 사례를 상세하게 예시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예시한 것 외에도 창작활동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등단이 맞나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 유연하게 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그때 제출해야 되는 출판계약서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것은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발간계약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간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봐서 저희가 동점일 경우에는 그런 요건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고려를 하기는 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출판계약서들은 굉장히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위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르 소설이나 논픽션 소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소설 안에서도 장편과 단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채용의 허약함.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지원제도의 영세성 문제가 꾸준히 발견됩니다. 한편으로는 심의의 공정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의 기본논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심의의 전체적인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책자만 읽어도 해결할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도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도 문학과 관련된 의결안건입니다.  
2020년 문학집필공간운영 지원사업(추가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정대훈 문학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문학집필공간운영 지원사업은 작가들이 집중적으로 집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해 운영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정시공모 때 심의를 진행했는데 그때 8,700만 원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원주의 ○시설에서 신청 서류의 실수가 생겨서 결국으로 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만큼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경과를 보시면 추가공모 안내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19일간 진행을 했고 총 4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건 중에 안타깝게도 2건이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서 결국으로 처리가 되어 총 2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해당 내용은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는 5월 11일에 진행되었는데요. 통상 서류 심의와 PT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PT심의를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해서 인터뷰 심의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1건을 지원 결정했고 남은 잔여예산액 8,700만 원 전액을 모두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지문화관이 1년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받는 지원금액과 동일한 규모의 금액이 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추가 공모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이 늦어져서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는데 8,700만 원을 전액 배정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론은 선정단체가 동절기에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8,700만 원을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작가들이 집필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사실 겨울입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안타깝게 이 시설들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연료비나 운영 여건이 취약해서 동절기에 운영되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동절기 운영의 사례를 만들어보고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해서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조건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이 되면 이 단체에다가 “이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를 발표된 이후에 논의를 진행하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집필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공간은 4군데가 있는데요. 황성의 에버딩문학관, 담양의 글을 낳는 집, 이천의 부악문원 그리고 올해 처음 지원된 정읍의 한옥마을 등 4군데가 있습니다.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병행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들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사업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발굴해서 지자체와 매칭을 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고필 위원

- 토지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매지리 농악전수관이 같이 있습니다. 농악전수관이 있고 마을에 공유시설이 있거든요. 집필공간은 사실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골리는 비용들은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마을 안에 농악전수관과 연계한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이쪽에서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자치단체와 매칭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식으로, 작가들에게 제공되는 공간 운영에 대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규모로 4군데 정도의 공간을 분배해서 지원하는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공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은데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연습 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공간을 제공 받고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이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그것을 문학집필공간에도 연결해서 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주 같은 경우에도 와서 협의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디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의 개선 방식이거나 또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집필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은선 위원

-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문학에서 집필공간은 필수지만 음악 쪽에서도 작곡이라든지 연극에서 대본을 쓰는 분들은 집필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작은 규모라도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음악은 창작소가 있지 않나요? 꽤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은선 위원

- 사실 작곡가들은 넓은 연습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로 실기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필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어디에 가서 곡을 쓰고

싶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신규 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실기이기 때문에 작곡가들한테는 오지가 않습니다.

#### ○이시백 위원

- 집필실이라는 개념의 문학지원정책은 작가들이 적지 않은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괄목할만한 지원정책이라고 봅니다. 또한 더 넓은 집필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르코에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작가들이 가장 애용했던 사찰, 만해문학관, 백담사 등이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멈추면서 큰 집필공간을 잃어버린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단과 협조를 하실 수 있다면 사찰의 공간을 집필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현재 있는 집필공간을 넓히는 문제와 그것을 자치단체가 돈을 내든 아니면 저희가 지원체계를 강화하든 겨울에 문을 닫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것. 사실 여기까지는 엄청난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문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서 크기가 작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집필공간과 관련해서는 오늘 저희가 심의해서 주려고 하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이 공간에 작곡하는 분이 가서 창작을 하는 사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도 창작공간에 장르 구분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안건은 간단한 의결안인데 의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마지막 의결안건입니다.  
어제 논의를 하셨던 7기 소위원회 1차 구성(안)입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어제 워크숍 때 논의했던 소위원회 1차 구성 계획(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예술 지원 소위원회 구성안이 별지로 있습니다.  
소위원회 1차 구성 계획(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7기 위원회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때 소위원회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현장접점 확대와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상설형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비상설형으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관련한 규정도 개정하는데요. 소위원회 운영과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소위원회 위원장 위촉 등과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정을 한다. 그리고 외부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각 소위원회별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과제 특성별 적합한 방법으로 추천하여 위원회 전체 회의에 의결을 받아서 위촉한다. 소위원회별 담당부서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논의하여 과제별 유관부서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1차 구성(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홍태립 위원님, 유은선 위원님, 이시백 위원님, 정유란 위원님이 함께 논의를 해서 운영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책혁신 소위원회는 이원재 위원님, 박경주 위원님, 조기숙 위원님, 이희경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성평등 소위원회는 강윤주 위원님, 이진희 위원님으로 해서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 위촉이나 외부위원 섭외는 소위원회 1차 구성(안)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해 주시고요. 그런 후에 분과별로 나눠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은선 위원

-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열띤 토론도 있었고요. 저도 구분해서 손도 들고 일단은 정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7기 위원들끼리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어떤 성과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에 대한 모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 위원 중에 이진희 위원이 합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7기 위원들끼리 한번 모임을 갖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 하면 인터뷰 관련해서도 개개인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있는 질문지에 보면 “재원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읽어보면 7기 위원 전부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논의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소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끼리 모임을 갖고 나서 의결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서면결의를 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경주 위원

- 그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것을 서두르려고 TF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한 안이니깐요.

#### ○이희경 위원

- 지금 구성(안)을 사무처에서 잘못 만드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전효관 사무처장

- 이게 의결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안이 아니고요. 상설 소위를 이렇게 3가지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운영 원칙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어제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기에서 논의해서 만드는데요. 전체회의를 하셔도 좋고요.

#### ○박종관 위원장

- 다시 정리를 하면, 안에 대해 합의한 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 ○유은선 위원

- 물론 과반수 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7기 위원이 돼서 이진희 위원 같은 경우 아예 참석조차 못한 상황이고요. TF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TF 자체도 이런 것까지 결정하는 TF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TF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얼떨결에 따라간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 ○이원재 위원

-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다양하게 논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토론을 해도 이것을 구체화 하는 것은 열어놓은 상태라서 이것이 이후에 논의될 것에 대한 장벽 구조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 구성(안)에서 현장소통은 열어놓았다고 보거든요. 어제 준비하면서 지역이나 장르도 일단 현장소통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셨고요. 정책혁신 소위도 어쨌든 이것을 더 세분화 한 것이 아니기 때문예요. 그래서 저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희 선생님이 빠져서 아쉽지만 지금 논의를 못하면 전체가 모이는 자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1~2주 안에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빨라야 2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2주에서 4주가 가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이 간다고 봐요. 오히려 밀도를 높이고 논의하는 자리는 계속 갖되 어제 논의한 큰 구조의 안은..... 이견이 있다고 하면 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제 합의한 대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인터뷰 건은 완전히 다른 건이기 때문에 따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경 위원

- 어제 워크숍 결과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것을 받자마자 “우리가 언제 소위원회 1차 구성(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소통, 정책혁신, 성평등 소위를 상설로 둔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소통 소위로 이전의 것을 그대로 이어올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구성된 7기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소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박종관 위원장

-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수정(안)은 3개 소위원회를 두기로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의 각각 세부 운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이니까 이회경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안)이라기보다 소위는 구성(안)이고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후 소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준비모임에 대한 의사까지 확인된 안이라고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구조가 이후의 확장성이나 논의를 가로막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토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딜레이를 시켜 버리면 그만큼 공회전이 되는 겁니다.

○유은선 위원

- 제가 딜레이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제가 첫 회의였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어제 분위기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에는 분위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되나 싶은 부분도 있어서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현장은 사실 공연현장, 예술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추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했던 현장의 개념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이 소위원회의 성격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상설로 가든 비상설로 가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F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모르지만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론으로 도출된 부분은 전달 받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유란 위원보다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만 못 들었나?” 싶었어요. “내가 체크를 못 했나?” 그런데 정유란 위원도 못 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7기 위원들끼리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설 비상설로 가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평등 같은 경우도 저는 “꼭 상설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어제는 제 의견을 내지는 않았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는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논의를 급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원재 위원

- 유 위원님 말씀에 모두 동의를 해요. 동의는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두르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충분히 논의하고 많은 시간을 갖자.” 이런 것은 동의하지만 구간마다 결정이 필요한데요. 말씀해 주신 것

을 보면 현장소통 소위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합의를 한 것이잖아요? 어떤 정체성과 현장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건 어제 결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얘기하신 것에 대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면, 현장소통 소위와 성평등 소위를 상설과 비상설로 놓는 것에 대해 판단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논의의 쟁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제 많이 논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진희 위원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제 입장입니다. 현장소통 소위는 어떤 논의를 거쳐도 사실은..... 유 위원님이 만약에 비상설 소위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아니시라면 현장소통 소위는 위원회에서 비상설로 보낼 수 있는 성격의 위원회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더 많은 논의를 하는 것과 다른 쟁점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항과 상관없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TF의 소통에 실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오히려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충분히 논의한 것을 사전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저희가 한분씩 참여하지 못한 분과 소통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전에 자료를 보내는 게 각자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로 보내는 것인지에 대해 혼선이 있어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분 스피치 관련된 것은 준비TF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전체가 있을 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직무계획서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각자 이런 방향을 얘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준비TF 하고는 다른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TF의 자료가 참여하지 못한 이시백 위원님 전고필 위원님, 유은선 위원님, 정유란 위원님께 미리 전달되지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지금 혼선과 오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처음 임명되어 오시던 날 간담회에서 소위원회 세팅을 빨리 하자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TF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 ○강윤주 위원

- 상설, 비상설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논의를 하느냐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거수로 결정하는 게 어떠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불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경주 위원

-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설을 정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수정의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명단이 모두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유은선 위원

-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오늘 의결을 해야 된다면 상설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말씀이지요?

○유은선 위원

- 저는 사실 그것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진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이 성평등 소위원회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요.

○강윤주 위원

-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만장일치제가 아니고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유은선 위원

- 예, 물론 제가 혼자 반대를 한다고 해서 결정될 것은 아니겠지만요.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고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도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그것을 갖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냥 가더라도 제 의견은 분명히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 성평등 소위원회가 상설로 간다고 하더라도 822호 안전에 대해서도.

○이희경 위원

-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유은선 위원

- 예,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계속 할 것이고요. 모두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두 분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진희 위원님이 오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는 않아요. 이진희 위원님은 사전에 문건도 주셨고요. 애초에 성평등에 관심이 있다고 쓰셨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안으로 해서 확정된 명단만 없애고 상설로 둔다는 것까지는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과반수로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어떨까 합니다.

○강윤주 위원

- 예, 동의합니다.

○이원재 위원

- 정말 죄송한데요. 한번만 더 말씀드리면 되도록 합의제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진희 위원님만 배제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던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 논의라면 재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진희 위원님이 워크숍에 참여를 못 하신 것 때문에 논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조기숙 위원

- 예, 충분히 알겠고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분위기가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에 대해서 경청하고 우리의 문화나 언어 방식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의결 방식을 과반수로 하느냐? 합의로 하느냐를 떠나서 현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하면 우리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윤주 위원

- 다시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다수결이 원칙이라면 거수를 통해서 표현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설, 비상설과 위원 이름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느냐에 대한 거수요.

○이원재 위원

-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압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당한 시간 준비를 하고 워크숍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의 합의구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놀란 것은 위원회에서 이야기 중에 계속해서 끊어요. 저는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압적이라는 게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이 내용의 의사결정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별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식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리고 고압적이었다는 분위기에 대해서 뭐가 고압적이었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 회의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제 합의했다고

3하는 것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압적인 분위기였다면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따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의사결정을 고압적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조기숙 위원

- 저는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유 위원님이 현장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제 회의가 강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혹시 가세한 것이 아닌가 해서 반성을 합니다. 단, 1명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다거나..... 우리가 10명이면 10분의 1정도를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할까봐 자제를 한 것이 강압적으로 보였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의결을 어떻게 하면 되죠?

#### ○전효관 사무처장

- 몇 가지가 구분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소위원회를 빨리 처리하자는 것은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대체로 동의하신 사안이어서요. 사실 합의제라는 것은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게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위원회의 임기 문제나 연속성 문제 때문에 빨리 논의를 하자고 해서 TF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논의를 했던 것인데요. 만약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여부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논의를 하자고 하면 두 번째로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두 번째로 의결을 한다고 하면 “상설 위원회를 둔다.” 예를 들어 지금 위원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을 확정하는 것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소위원회 운영 규정은 여기에서 의결이 되어야 사무처에서 규정심의위원회를.

####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바꾸기 위한 원칙을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해 달라는 것이죠? 의결주문이 정확해야 의결을 하죠.

#### ○유은선 위원

- 기존에 더 많은 소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상설과 비상설로 나뉘져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소위원회와 비교 검토가 논의 대상에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 ○이희경 위원

- 저는 지금 사무처장님 얘기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TF의 논의가 다른 위원님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논의가 다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충분 했느냐?” 그 얘기는 각자 돌아가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충분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했던 얘기는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박경주 위원

- 저도 이희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실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TF를 했는데, 서로 잘 모르는 상태다보니까 전달이 충분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최소한 할 것은 해야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요.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만남에서 소통하는 것으로 하고요. 3개의 상설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까지는 오늘 결의가 되어야 한 발짝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을 주시죠.

#### ○정유란 위원

- 사실 제가 어제 말씀을 많이 안 드리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물리적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공유 되고 그것을 누군가 득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TF에서 논의되었던 자료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유되지 못한 것을 몰랐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해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중요성과 지금 사안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어제 이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양과 정보를 습득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예요. 적어도 7기 위원으로서 저희들끼리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다시 얘기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제 정리된 부분까지는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20년 소위원회 1차 구성(안)의 앞 페이지에는 제 이름이 없고 뒤 페이지에는 제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원재 위원

- 그것은 오해인데요. 뒤에 것이 안건이고요. 어제 그 논의를 할 때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선생님의 현장 전문성 때문에 안으로 제안을 드린 것 같아

요.

○박종관 위원장

- 그 부분은 해결이 되셨죠?

○정유란 위원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제 워크숍은 지금 말씀 소통의 부재나 혼선이나 오해를 푸는 자리였는데요.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시면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은선 위원

- 저 하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다수결에 의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진희 위원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던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오지 않은 사람은 100% 현장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이고요. 사전에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위원장님이 어제 말씀하셔서 그쪽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이게 충분한가?”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의견들을 개별적으로 밝히지 마시고요. 지금 유 위원님 의견대로 상설, 비상설을 나누고 상설에 3개를 두자는 합의안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그게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자꾸 개별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요.

○이희경 위원

-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강윤주 위원

- 그런데 개별적인 의견으로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거수로 하자는 것이죠.

○박경주 위원

- 제가 볼 때는 이름만 빼면 이 안은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손을 들고 결정을 하자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이 정리를 해 주시죠.

○유은선 위원

- 이름의 문제가 아니죠.

○전효관 사무처장

- 아까 2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논의되었던 것까지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개별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가·부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의결주문을 저희가 수정해서 의결하는 방식인데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숙 위원

- 저는 논의가 좀 불충분했지만 논의는 계속 이어 나가고 오늘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어제 합의안을 한 번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런 의견이 없으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가·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저는 반대라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얘기하시면 가·부로 가면 되는 것이죠.

○박경주 위원

- 저는 일단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윤주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고필 위원

- 저도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백 위원

- 소수고 충분히 공감했다고 하지만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더욱이 여기에 추가되는 위원회에 대해 제안한 의견이라면 이대로 통과하고 추가하면 되는데요. 아까 생각하시는 지점 중에 비상설로 옮겼다는 안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해서 통과를 할 것인지? 다시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유보적입니다.

○이원재 위원

- 저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숙 위원

- 저도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수결로 의결이 된 것이네요.

○이희경 위원

- 수정의결을 하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성안을 해 주세요.

○전효관 사무처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의결주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아니요. 지금 마무리를 하죠.

○박종관 위원장

- 실무쪽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현재 논의된 것으로 의결안을 성안할 수 있으세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의결 내용은 어제 워크숍을 반영해서 의결주문을 하는데요. 현장소통 소위원회, 정책혁신 소위원회, 성평등 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위원의 구성,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소위원회의 준비 위원을 구성한다. 그래서 표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회경 위원

- 아니요. 그런 것을 명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3개를 둔다는 것까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면 2가지가 있는 것이네요. 거기까지가 동의사항이라고 하면 3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안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제 자천을 했는데 그거는 유보를?

○이회경 위원

- 아니요. 그것은 유보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인데요.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의결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 의결하시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원래 요건을 보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하지 말고 3개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비했던 분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서 서면의결이나 다음 주라도 의결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의결내용이 3개의 상설 위원회를 둔다는 것입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왜냐 하면 지금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어떤 것까지 간다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통과시키는 것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의결할만한 내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낸 성평등 소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성평등 소위원회 구성안을 별도로 의결하면 되죠.

○이회경 위원

-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안은 의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두 번째 안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이유는 지금 위원회에서 강윤주 위원님과 이진희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데요. 이진희 위원님이 참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게 오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듯이 뭔가가 완전히 구성된 다음에 본인이 그냥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오늘이 지나고 통화를 하셔서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논을 하셔서 이진희 위원님이 “괜찮다.” 라고 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서면의결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야 말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박경주 위원

-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시백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상설과 비상설로 나누고 상설 소위 3개를 둔다는 것은 합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임기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위촉 방식을 포함한 것은 각 위원회별로 한다.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설은 나중에 따로 의결을 또 받아야 하나요? 지금 소위별로 안건을 따로따로 낸다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3개 상설 소위가 어느 정도 내부 기준이 마련돼서 823호 안건 수준으로 나온 뒤에 묶어서 소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게 형식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윤주 위원

- 예, 맞는데요. 제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성평등 소위는 이미 이만한 문건이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위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저희의 공백이 너무 크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거듭해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 ○이원재 위원

- 일단 그것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과 합의된 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다른데요. 예를 들면 현장소통이나 정책혁신이든 완결적 구조로 위원님들이 모두 합의해야 한다고 하면 언제 구성이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정책혁신 소위가 무엇을 다룰 것이고 뭘 구조화 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몇 달이 가도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비생산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제안을 드린 것이 논의의 접근이나 소통을 가로 막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의 의사결정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지금은 구성만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장소통 소위든 정책혁신이든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블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정책혁신 소위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면서 공회전이 되니까 불편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고 이후에 현장소통이나 정책혁신이든 준비단을 하기로 어제 합의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완결되어 성안으로 여기에 올라오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연성이나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문사항은 어제 논의했던 소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와 비상설 소위원회로 하고 비상설 소위원회 안에 워킹그룹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합의되었다는 것이고요. 가·부가 있다면 가·부를 성안해서 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사항은 이름을 여기에 넣어 구성한 것이 아니라 준비 모임에 대해서 위원들의 참여가 확인되었다는 것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어떤 문제도 충돌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은선 위원

- 사무처에서 그것을 의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전에 있었던 10개면 10개의 소위원회를 비상설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결정할 수 있고요. 성평등 소위원회의 나머지 위원을 오늘 확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1년 연임시킨다는 문제에 대한..... 물론 강윤주 위원님이 열심히 했던 것은 알겠지만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유 위원님 말씀은 다른 위원들이 다 구성돼서 전체 논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가요?

○유은선 위원

- 아니요. 최소한 이진희 위원과의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윤주 위원

- 예,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상설과 비상설 관련해서 의결하는 것을 서면의결로 돌리고 나면 그 서면의결을 할 때 저는 동시에 이진희 위원과 논의한 안을 가지고 서면의결을 부탁드립니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오늘도 기존 10개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희경 위원

- 그 얘기는 불필요한데요. 그 얘기는 어제 TF를 할 때 왜 우리가 상설 3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유은선 위원

- 의결은 안 한 것이잖아요?

○이희경 위원

-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닌 것이죠.

○유은선 위원

- 왜냐 하면 그게 급하다고 하니까 일단 3개를 해놔야 그 다음에 논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의결하시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상설 소위를 3개만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소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상설과 비상설로 구분하고 3개는 일단 추진하기로 의결하는 것이죠. 정책 소위에서 별도의 소위를 상설로 두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희경 위원

- 이게 최종이 아닙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면 그런 문구까지 넣어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겠네요.

○이원재 위원

- 어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제 합의사항입니다. “상설과 비상설을 둔다. 상설은 현장소통, 정책혁신, 성평등 소위원회 구성한다. 성평등 소위는 가능하면 빨리 구성한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소위 운영은 사무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로 세분화한다.” 이것은 어제 합의한 내용인데요. 그 이상의 어떤 의결이 있나요?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사무처의 고민은 이게 의결사항인가?

○박종관 위원장

-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의결인가요. “이것은 원칙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의결하려면 이러한 소위를 둔다.”, 혹은 “이 소위는 누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야 의결이 되는 것이죠.

○조기숙 위원

- 오늘은 3개 상설 소위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의결하는 것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은 의결주문을 만들려고 할 때 토론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합의된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결주문을 하려고 하면 세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라서 합의한 것을 오늘 확인하고 준비모임을 통해서 서면으로 의결하는 절차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조기숙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전부 동의가 되신 거면 이렇게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보고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6개의 보고안건이 있습니다.  
문예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보고를 해 주실 건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문예진흥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377회 국회에서 전체회의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원장 호선제로 임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원 임기가 3년으로 변경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해 집니다.  
세 번째는 결원 위원장 및 위원 발생 시 신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님의 임명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코로나19대응 관련 공연관람료지원사업 준비경과 및 향후 진행계획(안)인데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죠.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연관람료지원사업은 3월 18일 경제부총리 발표로 시장에 코로나 대응해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그때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이 공연을 못 하게 하면서 공연관람료를 지원한다고 하니깐 엇박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은 애초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체부와 함께 논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60억 규모로 진행하다가 저희 문예진흥기금으로 배정이 확정되면서 130억 규모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다시 28억 규모가 증액돼서 3차 기금운용변경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저희 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됴더라도 불구하고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모두 배제가 되어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7기 위원회 첫 회의에 이 사업의 진행경과를 보고 드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급하다고 진행되는 이런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큰 맥락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6월에 본격적으로 각 장르의 위원님들과 어떻게..... 특히 기초예술 분야의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안을 보고드리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250페이지의 영화는 5월 13일 발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붙임자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준비한 초안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니라 이 안을 가지고 현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각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 텐데요.

○정유란 위원

-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박종관 위원장

- 예, 하십시오.

○정유란 위원

- 저는 사실 앞의 내용보다 이 내용이 제일 궁금해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요. 공연 관람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이 안을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고 이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변경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현장 의견 수렴에 대한 통로를 열어야죠.

○정유란 위원

-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간담회라고 해서 1차, 2차, 3차, 4차 중에 1차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명단에 제가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왔고요. 그런데 2차, 3차, 4차를 거치면서 이 방향으로 좁혀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해 반발이 심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놔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는데요.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의결안건으로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저희가 여기에 써놓은 이유는 문체부에서도 5월 13일 예경 측에 담당주무관이 카톡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티켓 예매처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안건으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저희 담당부서와 위원님들이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제시 방법 등은 사무처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란 위원

- 그러면 예경은 현안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예산의 집행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식인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아예 수행기관을 예술경영지원센터로 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130억이 저희한테는 그냥 아무 예산 없이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130억이 찍혀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1차 때 참석하셨던 회의록 등을 다 받았는데요. 겨우 2번 가지고 이 큰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3차와 4차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오늘 보고사항으로 그간의 진행경과를 말씀드린 다음에 6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심도 있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왜냐 하면 어제 영진위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영진위의 3차 추경안에 티켓만 1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진위는 국회 심의과정에 개입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게 영진위의 방침입니다. 저희는 3차 추경이 이것은 아닌데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모여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집행 방법에 관련되어 논의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확정안이 나와 있다고 보기보다는 논의 중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일단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문체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향유 쪽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공연관람료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회를 빼고 갔던 이유는 처음에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했었는데 기금이 아니라 국고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그 논의과정에서 빠졌던 겁니다.

두 번째로 추경이라는 용어는 예산에서 쓰는 용어고요. 정확하게는 기금운용변경인데요. 저희들이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예산액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30억 이다.”라고만 기재부와 얘기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향유자 지원 쪽으로 해서 향유자가 선택해서 표를 살 때 할인을 하겠다는 일개정도는 내용에 포함되어서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8,000원으로 할 것이냐, 2만 원으로 할 것이냐, 혹은 카드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 자체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의 얘기는 큰 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세부 집행 방식이나 기준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이종국 부장님의 얘기는 다시 재설계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용어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공연관람료로 되어 있어서 경제부총리가 3월 18일날 공표한 사업은 유지하되 실제 진행방식은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자들도 “8,000원 갖고 이것이 되냐?”, “과연 유인 효과가 있는 것이냐?”, “영화는 12,000원에서 6,000원이니까 절반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공연은 10만 원짜리 뮤지컬

을 보면서 8,000원을 받으려고 이것을 신청할까?”라는 내부적인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디테일한 것들은 전면 재설계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같은 의견입니다.

○ 정유란 위원

- 그러니까 공연관람료 지원 사업은 유지가 되는 것이네요.

○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그 틀은 유지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식상 2차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130억과 3차로 기금운용계획변경..... 사실 그 내용도 저희와 일절 논의된 바가 없이 문체부에서 통보 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우리 기금이니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150억 가까운 돈을 사용하면서 어떤 효과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현장의 공감대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있어서 7기 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해 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오늘 안건으로 올린 것입니다.

○ 이원재 위원

- 질문인데요. 새로 기금운용을 변경해서 코로나 관련 130억 예산을 문예진흥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문체부가 예경 사업을 설계했고 그 과정에서 아르코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랬을 때 행정적이나 법리적으로 의사결정에 대해 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위원회가 가결하지 않으면 130억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정확한 의사결정 권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송시경 본부장이 대답을 해 주시죠.

○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창작지원이 있고 향유지원에 대한 세부 설계를 문체부가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기금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관람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예전에 1+1 또는 사랑티켓을 생각하면서 파트너십으로 위원회를 빼고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으로 할 것이냐 기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6기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보고된 것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 논의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빠졌지만 예산 부분에 대한 것으로는 위원회에서 보고 받거나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사업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 것이

나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술계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5월과 6월에 논의한 다음에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권한은 있었는데 6기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의결은 아니죠.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249페이지를 보시면 추진배경 및 경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날짜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6기 위원회 회의에서 정확하게 의결된 것은 이 사업만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7기 위원회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정유란 위원

- 249페이지의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2020년 4월 23일에 의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그러면서 회의록에 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7기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사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권한이 있는데 6기 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그러니까 공연관람료 130억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런데 그때 확정할 때 의결을 하고 이 기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질문입니다. 가결을 했는데요. 기금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계획 수립에 있어 아르코가 배제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계획을 변경하거나 계획에 참여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경이나 문체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조금 전에 송시경 본부장이 설명한 것이 배경입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지금 위원회의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이 한해의 것을 정리한다거나 할 때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고가 된다거나 경상보조비 등을 결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에 대한 규모나 대강의 열개로 결정하고 집행할 때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결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130억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새롭게 이러한 방식으로 가자는 부분도 전차(前次) 회의에서 7기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 된 것이죠. 금액은 결정이 된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원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당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기금운용에 관한 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논의 주체에 포함되지 못하고 진행된 것들은 사후 추인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6기에서 편성까지 권한이 넘어갔는데요. 사실 사업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는 7기에서 토론하자는 얘기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문화부와 예경에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지 논의를 끌어가는 주체가 아닌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일 텐데요. “우리는 집행을 못 하겠다.”, “논의 테이블을 다시 꾸리자.” 라고 하는 게 아니면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8,000원보다 많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논의를 끌어가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경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유란 위원**

- 그러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고요. 기재되어 있는 문구만 봤을 때는 공연관람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라면 위원장 입장에서 문체부에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연관람료’ 라는 큰 틀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유란 위원**

- 공연관람료 지원이라고 안 쓰여 있고 “예술계 피해 경감의 시장 활성화”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연관람료 지원사업과 같은 동의어로 보는 건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이 문구는 저희가 4월 23일 날 했을 때 의결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유란 위원**

- 그러니까 4월 23일날 공연관람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경제부총리 발표 후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문구는 모두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유은선 위원

-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와서 못 들은 것 일수도 있는데요. 시장 활성화는 알겠고요. 예술계 피해 경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술계에 도움이 되나요?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일단 간접 지원방식으로, 그러니까 메르스 때 나왔던 1+1 그리고 기존의 사랑티켓 방식으로 생각해서 발표했던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유은선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담회 진행내역을 보면 1차에서는 공연계의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했는데요. 실제로 소비 진작을 위한 의견수렴에서는 공연계 피해를 얘기했던 것은 빠져 있어요. 물론 예술위원회가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장 소비활성화지 예술계 지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영화가 들어가 있어서요.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다루는 순수예술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진짜 안 받을 거면 여기에서 결의해서 7기 예술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우리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겠다.”, “안 받겠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원재 위원

-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논의 계획 구조에서 아르코가 큰 액수로 기금을 변환했는데 담당자이나 팀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 구조 등은 앞으로도 첩첩산중일 것이고 내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실무팀의 의견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예, 일단 유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쨌든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말하는 추정, 저희들이 말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 35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

데 351억 5,000만 원의 큰 줄기를 알아보면 하나는 예술창작이 있고 하나는 유통이 있습니다. 창작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시각예술창작산실도 있고 공연장대관료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온라인지원, 특성화극장운영, 아르코청년예술가 등은 직접적으로 창작자에게 가는 몫으로 해서 198억 5,000만 원이 이미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간접지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국민들에게 가면 국민들이 관람료를 통해서 써야 되니까 결국 예술계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 쪽으로 가는 게 63억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예술관람료 지원이 13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예술계를 위한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보면 창작자에게 가는 돈은 아니지만 국민을 통해서 예술계로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말하자면 40만 원, 50만 원 주는 돈은 뭘 해야만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의견이 강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주어진 법령이나 프로세스가 다 따라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도는 가능하지만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술계를 위해서는 수혈이 필요한 부분이고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체부와 초창기에 예경에서 했던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기금으로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관여를 했으니까 조금 더 디자인을..... 예를 들면 1+1 때는 부정사용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위원님이 관여하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하지 말자.”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예술계에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윤주 위원

- 한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350억 중에 130억 이라고 했나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351억.

○강윤주 위원

- 예, 거기에서 130억 이잖아요? 말씀대로 이게 궁극적으로 예술계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예술계에 필요한 직접적인 1단계 수혈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법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30억 이라고 하는 큰 돈이 돌아서 예술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조기숙 위원

- 이미 결정사항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죠.

○박경주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난번 1+1에 대해서 시끄러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그것과 비슷하게 되겠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것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1+1 사업이 상당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방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작자들이나 그런 소규모 제작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대로 실행했을 때 지난번과 달라진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공연분야의 위원님 혹은 다른 위원님들도 논의 구조 속에서 그런 부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어서 강운주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창작자에 직접적인 지원금액은 158억 5,000만 원이고요. 간접지원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내지는 일반 국민들이 공연예술계 쪽으로 쓰는 돈으로는 193억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쳤을 때....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우리 기금운용계획 예산에서 1차와 2차 추가된 총액이 지금까지 351억 5,000만 원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의 출발점으로 가겠습니다. 정유란 위원님은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 ○정유란 위원

- 저는 7기 위원으로 들어온 시기가 하필 코로나가 터진 시기에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19 피해 대응 관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기존에 해 오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준비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올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게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현장에서 많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행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실행되었을 때, 사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요. 제가 연극분야의 위원이고 어쨌거나 저는 현장에서 어떤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가를 주목하면서 여기에 왔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문체부에도 여러 번 여쭙보고 들었거든요. 정해져 있는 방식. 이렇게라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제가 7기 위원으로서 처음으로 현장의 의견을 대변해서 의견을 냈을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위원으로서 정체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 ○홍대립 위원

- 정리할 수 있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을 들어보니까 6기 위원회 때 결정된 사항이고 7기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엄청 많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가 있고 유통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저희가 무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문체부

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이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저희한테는 그냥 기금을 빼먹는 얘기만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안 시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문체부와 예경 그리고 7기 위원회가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만들어 지든 해서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서 7기 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의 장이 있으면 합니다.

#### ○박종관 위원장

- 7기 위원회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공식 의견을 만들어서 문체부에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대관료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저희를 통해서 예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이라든지 집행방법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집행방법은 교부를 할 때 교부 조건으로 내보내고요. 그런데 교부조건이 단순하게 위원회만의 의견이라고 하면,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업파트너는 지금 현재 예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경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일방적으로 교부 조건으로 달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뀌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경과 문화부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해서 합의된 걸로 교부를 하겠다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오늘 보고를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종합적인 대응과 관련된 보고였으면 그런 보고가 전제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 보고 자료를 보니까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방금 홍태림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체는 설명드리면,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당함에 대해서 문체부에 의견을 전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아까 송시경 본부장이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국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쪽에서 기금 쪽으로 예산을 잡으면서 우리 사업에 부담이 되었고요. 처음 규모였던 250억에서 130억 정도로 축소가 돼서 저희 사업(안)으로 세팅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유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은 예경과 문체부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얼마든지 논의하고 토론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논의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정리가 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시백 위원

- 정유란 위원님께서 논의 단계에 참석을 하셨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는 것까지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반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 ○정유란 위원

- 지금 1차로 간담회 날짜가 2020년 2월 13일 목요일로 나와 있는데 이때 제가 참석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이 공연계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연계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으로 도출되는 과정 안에 제가 있는지를 몰랐고요. 어제 몇몇 위원님들께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체부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공연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야 들으러 다니는 게 말이 되는가?”, 재난상황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무슨 상황만 닥치면 그때서야 현장에 나와서 “어디가 얼마나 아프니?”,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묻고 있는 현실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빨리 안을 제시해 달라.” 우리보고 안을 짜내라고 하지 말고 그동안 쌓은 뭐가 있지 않은가? 지금 모두 죽어나가기 생겼는데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월과 5월에 거쳐서 관람료 지원사업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논의 단계에서 뭔가 유의미한 여러 의견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박경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플러스 원의 폐해로 기억되고 있는 사례로 기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느끼기에 시장 활성화라는 부분들로 가기에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위원회 안에서 의견수렴이 돼서 뭔가를 논의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너무 더딘 것이죠. 밖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릴지 연구해 봅시다.” 이런 논의들을 문체부와 예경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절망스러운 게 많아요.

####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연이 되어야 대관료를 줄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공연이 되어야 티켓의 일부를 보존해 주죠. 지금은 공연이 불가능한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용자사업이나 창작디지털 사업들을 크게 확대하고 어떻게든지 생존을 시키는 전략에 돈을 써야 할 것이 아니냐는 강한 주장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대안들이 미리미리 나오게 설계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실제 대응도 “최선을 다한 대응이었던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주 본부장이 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위원회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가 예술계를 위한 취지이고요. 물론 창작과 향유라고 하는 부분에

서 향유 부분이 더디기는 합니다만, 향유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안정된 상태에서 공연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디자인이 된 만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아까 확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금액뿐만 아니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로 유통과정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국고든 기금이든 상관하지 않고 문체부와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될 때 막혀 있어요. 그런데 정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가야 되거든요. 생활방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쪽의 향후 추진일정(안) 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부서 참석’ 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일단은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당초 계획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논의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경 쪽으로는 뭔가 사무실도 꾸리고 인력도 채용하며 전산 시스템도 만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을 앞당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줄이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구조로써 6월 안으로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연분야 위원 각 장르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자문회의를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의견으로 화합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 최선의 방법은 없어요. 차선의 방법으로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안을 이끌어 내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7기 위원회와 현장과의 첫 접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니라 우려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페이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깐 그것을 실제 안으로 만들자는 게 7기 위원님들께 저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공연관람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접점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든 사업에 접점이 있을 것이고요. 재빠르게 제대로 된 방법론을 찾아야 하는 역할이 7기 위원회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 변경과 관련된 보고를 급하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김선옥 노조위원장**

-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기 위원회의 첫 회의인데요. 지금 4시간 30분 쯤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참관을 하면서 봤는데 “그동안 이 위원회라는 구조가 왜 시간에 비례해서 생산적이지 못했나?” 라는 것을 오늘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아직까지는 저희 사업구조나 용어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서 자세한 사업관련 설명 자료나 용어, 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

때 제공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히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가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예산규모부터 사업절차, 심의위원 구성 등을 논의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고요. 사무처에 계신 간부님께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은 공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상호 논의를 하셔서 임팩트 있는 보고와 혼선이 없는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해 예산의 20%까지 수정하여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결정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아까 보고 받으신 액수 이외에도 약간의 추가 여유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길어진다 보면 결국 430억 가까운 모든 것을 변경 예산으로 대응해야 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코로나 19 대응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과 관련해서는 길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문건으로만 그냥 나눠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할까합니다.

이왕에 시작한 회의니까 회의를 마차기 전에 소위원회 활동 보고도 간략하게 받겠습니다.

우선 7차 예술정책지원 소위원회 결과 보고는 조기숙 위원님만 남아 계시는데요. 송시경 본부장도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3차 추경 심의결과가 왔다는 메일을 받았는데요. 아까 논의에 대해서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의 성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통상적인 기금운용계획 성립 절차는 법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문체부장관에게 갑니다. 그러면 문체부장관이 기재부에 제출하고 거기에서 정리해서 정부(안)이 만들어져서 국회로 가는 과정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지금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예술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직접적으로 예산을 협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문화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에서 국고로 먼저 추진하다가 위원회가 뒤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3차 추경이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경 같은 경우 문화부가 기재부와 직접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정책과, 공연과, 시각과 등 모든 과에서 추경을 요청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금이 될지 국고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기금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114억 정도가 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관람료 지원, 공연 쪽의 28.5억이 추가되었고 전시관람료 지원에 51억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부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심의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관람료 같은 경우에도 기재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를 먼저 하면서 우리 기금이 정책을 수용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원재 위원

- 제가 독해를 하기로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겠지만 7기 위원회가 슈퍼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으로 코로나TF를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기재부와 문체부 그리고 7기 위원회가 권력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이 나쁜 게 아니라 앞서가는 정책적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바로 오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예술계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일을 하지 말자는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략TF를 두자고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코로나전략TF는 제 생각에 1~2개월 사이에 매뉴얼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7기 위원회든 어떤 형태든 입장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많은 부분의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마음만 앞섰다고 해서 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담당부서에서 보고하신 것에 조금 더 보태면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위원회와 예경센터라든지 문체부 협의 채널에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으면 그것을 돕는 방법으로 제안해 주는 식으로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와 관련된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추가 의견보다 소위원회 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희경 위원

- 소위원회 보고를 꼭 해야 할까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소위 구성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기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종관 위원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어떻습니까?

#### ○홍태림 위원

- 모두 보고(안)으로 올라와 있고 가장 중요한 안건이 백서 제작이었는데요. 백서 제작도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 ○박종관 위원장

- 예, 백서에 대한 보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백서를 냈고요. 이희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이희경 위원

- 예술정책확산 소위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활동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제가 1월 회의록을 봤습니다. 1월 회의록이 의결사항 없이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소위원회 활동 보고가 늘 뒤로 밀려서 소위원회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지 못했는데 7기에서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해 보니까 9개가 넘는 의결안건과 6개가 넘는 보고사항을 해결하기에는 1~2시간을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노조위원장의 얘기도 있었지만,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된 논의와 혹은 질의 내용 등은 7기 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위원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27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42분 회의종료)